九宮還定九九歌

[해제]

<九宮還定九九歌>는 『莫笑歌』라는 활자본 가사집(14*19.2cm)에 수록된 작품으로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九宮還定九九歌>의 정확한 창작 연대와 작자는 알 수 없으나, 동일한 가사집에 수록된 <莫笑歌>가 1919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九宮還定九九歌>는 구궁(九宮)이 새롭게 돌아와 정(定)해지는 이치를 구구법, 즉 구구셈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이는 천지운행의 원리에 따라 유・불・선 3도의 도리와 동・서학을 하나로 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갱정유도(更定儒道)의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九宮還定九九歌>는 9×9=81이라는 천부경의 수리가 내포되어 있는 구변구복(九變九復)의 원리와 천지(天地)가 바뀌는 '역천지(易天地)'의 원리 등을 바탕으로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어 문명이 발달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치를 이야기 한다. 이는 갱정유도에서 이야기하는 생사교역, 즉 천지가 거꾸로 지천(地天)이 되었다가 다시 천지로 바뀌는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곧 선천(先天) 세계의 운이 다하고 노쇠하여 혼돈의 세계가 된 것을 본래의 세계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九宮還定九九歌>는 갱정유도의 생사교역의 이치를 담아내고 있는 노래인 것이다. 그리고 가사의 말미에는 <九宮還定九九歌>의 내용과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한시(漢詩)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한시는 삼황오제가 봄에 환궁하니 조선에 오색구름의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결국 천하 각국(各國)에 믿음이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九宮還定九九歌>가 유불선과 동서학의 이치를 합하여 변화된 세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갱정유도의 기본 교리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許多人心 蒼生中의 知覺者가 뉘긴가
알고보니 나네 日落西山 黃昏時鷄
岩白닥 울고 魚羊村 기짓서
日出東嶺 힛썻네 웃지마소 웃지마라
至公無私 하날님 大善至誠 왓네
알수업는 世上事 알고보니 난걸
제마음을 제몰나 웃고보니 後悔莫及
갈곳설 모른다
莫笑歌兮還精神 知歌知歌心還定
還精神兮莫笑歌 心還定之知可生

九宮還定九九歌

於吾人心 ᄂᆡ사람덜 九宮還定九九歌를 드러보소
九九法을 마련할ᄊᆡ 九龍變化 天神造化
九變되니 九復이라 이ᄂᆡ變化 뉘變化가
이ᄂᆡ變化 모로거던 周易일거 乾坤卦를 알소
牛性在野 저乾牛가 金水下降 ᄂᆡ려올제
人生於寅 三皇五帝 龍巳起陸 안일넌가
龍巳起陸 모로거던 蛇身人首 風姓다려

무러보고 河圖星辰 기름도 싸뉘
기름이 늬기름고 符圖기린 저사람이
自爲化之 能文能筆 無書되는 이末世의
다시文明 발키짓나 未有文字 모로거던
方今 世上 아라보고 亡於文을 잇지마소
亾於文이 되올씨의 興於文이 업단말가
伏羲氏는 龍馬되고 女媧氏는 靈龜되니
灵萬되난 女媧氏가 伏羲氏의 쌀일넌가
始作笙簧 彈琴聲은 五絃琴上 七絃琴이라
無形中의 나난소리 金佛能語 男變爲女
女變爲男 變陰變陽 모를네라 此世上
愚夫愚女 聞道中의 變化런가 變化無窮
저姜氏가 文化柳氏 되자하고 其文歌之
女子로다 人身年首 뉘가알쏘 南平文氏
分明터라 炎帝씃설 모로거던 火德王을
生覺하소 南平二字 씃시잇네 이런고로
世上일을 못소기여 萬姓之祖 뉘가긴가
中入精神 하올씨의 火生土之 木生火라
鞭草木을 치질할제 神人用兵 안일넌가
感而生帝 저양반임 蚩尤乱이 어인일고
禽之制의 기운기字 涿鹿野의 빵일넌가
代炎帝而 天子位를 鳳의祥瑞 잇섯는듸
金天氏의 저白虎가 走靑林이 어인일고
民神雜糅 不可方物 잇지마소
顓頊이 受之하야 乃 命南正重하고
司天而 屬神하며 火正黎로 司地而屬民하며
使無相侵瀆 於天皇氏 之域이러라
잇씨비로소 作曆하야 以孟春으로 爲元하다
生而神灵하사 自言自名하야 此世之 無極乎아
黃帝之 曾孫이러라 其仁如天하고 其知如神하며
就之如日하고 望之如雲兮여 陶唐氏 之發育萬物
養性之 風士러라 此乘彼 白雲至
于帝鄕에 有虞氏 之下降이러라 故로
三皇五帝 之變化 符合한니 豈非還定九宮고
九宮天地이 天地太極 两儀堯舜時節 九宮還定九九歌를
불너바 九九는 八十一하니 九重宮闕
조흔고듸 八百烟花 羅烈이요 八年風塵
다지늬가니 八仙女 之侍位로다

一人之定 이天下의 諸候歸之 안이런가
八九 七十二하니 八字치례 저양반님
七十二人 다왓거라 春夏秋冬 四時節의
陰陽之合 안일넌고 萬歲同樂 天地定位
夫婦合德 鮮寃世라 七九 六十三하니
七代英雄 안이어든 七国朝貢 밧단말가
六判書의 三정승언 三台六鄕 마련이요
周文王의 저太公이 妲已妖鬼 자바다가
단지옥의 가두워 죽이여 一夜平定
하엿써라 이말삼은 以藥伐病 하난양반
以善伐惡 天下平定 明明其德 일넛구나
六九 五十四하니
六十四卦 五行遁을
四時一氣 圖來로다 天佑神助 안이고서
人力으로 되단말가 五九 四十五하니
五雲朝起 이朝起 이朝鮮의 四目聖君
나단말가 四目聖君 뉘길넌고 五彩龍文
잇제만은 사람마당 다모린다 漢沛公
五彩龍文을 茫增 안이고 아단말가
四九 三十六하니 四十平生 머근마음
三年成工 하자하고 六韜三畧 丁丁軍容
遠近의 버러놋코 呼神接氣 呼來斥去
姜太公의 어진兵法이 안인가
三九 二十七하니 三人一夕 닥글수자
三人안코 못닥는다 天地人三才 之道變
易天地 二人合을 七元君이 化하엿네
七星前의 듸린정성 三人一心 되엿던ᄀᆞ
天地大道 氣還定 二九 十八하니
二千年을 바던運數 八王門이 뉘집안고
大成宮中 春光好라 一九 九하니
一天下의 九州江山 九十天地 變化로다
어아人心 ᄂᆡ사람덜 世間衆人 不同歸를
아라거던 世間衆人 皆同歸를 잠을씬야
아라ᄂᆡ소 얼시구나 잇씩로다 異端虛無之道
업서진다 文明發達 되어나네
三皇五帝春還宮 五雲朝起吾朝鮮
四目聖君時代家 天下各國歸來信

九宮還定九九歌

悔過自責歌

요보와라 世上사람 우리집안 조흔運數
하날님이 왓네 天地合德 되올씨의
하날업시 될가 河南程氏 两夫子出을
모르거던 大學經을 익소
大學이라 하난글 格物致知 안인가
格物致知 되올씨 萬事知가 안인가
勿忘世恩 모로거던 永世不忘 알소
亡於文이 되올씨의 佛道世界 안인가
陰陽交戰 저周易 君子好述 왓네
易字뜻슬 모로거던 周字뜻슬 알소
隨時變易 누구여 無往不復 도로온니
누군가 至公無私 하날님 善心者를 찻네
先覺者를 일을씨 天不違가 안인가
后覺者를 일을씨 奉天時을 일넌네
朱天子의 어진道德 天必命之 일넛네
天必命之 모로거던 基初定을 알소
된다된다 하고 此日彼日 하더니
될난인긔 自虛有實 쉽게도 되네
이리될줄 아는사람 뉘기뉘기 일넛나
葛處士의 十步歌 無形世界 일넛고
退溪先生 勸善歌 有形世界 일넛네
鄭鑑의 일은말 佛道聖人 안인가

[현대역]

허다(許多)147 인심(人心) 창생(蒼生) 중(中)의 지각자(知覺者)148가 누군가
알고 보니 나네 일락서산(日落西山)149 황혼시계(黃昏時鷄)
암백(岩白) 닭 울고 어양촌(魚羊村) 개 짖어
일출동령(日出東嶺)150 해 떴네 웃지마소 웃지마라
지공무사(至公無私)151 하늘님 대선지성(大善至誠) 왔네
알 수 없는 세상사(世上事) 알고 보니 난걸
제 마음을 제 몰라 웃고보니 후회막급(後悔莫及)
갈 곳을 모른다
莫笑歌兮還精神 知歌知歌心還定
還精神兮莫笑歌 心還定之知可生

九宮還定九九歌

어오(於吾) 인심(人心) 내 사람들 구궁환정구구가(九宮還定九九歌)1를 들어보소
구구법(九九法)2을 마련할 때 구룡변화(九龍變化) 천지조화(天神造化)
구변(九變)3되니 구복(九復)4이라 이내 변화(變化) 뉘 변화(變化)인가
이내 변화(變化) 모르거든 주역(周易) 읽어 건곤괘(乾坤卦)5를 아소
우성재야(牛性在野)6 저 건우(乾牛)7가 금수하강(金水下降)8 내려올제
인생어인(人生於寅)9 삼황오제(三皇五帝)10 용사기륙(龍巳起陸)11 아닐런가
용사기륙(龍巳起陸) 모르거든 사신인수(蛇身人首)12 풍성(風姓)13더러
물어보고 하도성신(河圖星辰) 14 기름도 짜니
기름이 내 기름인고 부도(符圖)15 그린 저 사람이
자위화지능문능필무서(自爲化之能文能筆無書)16되는 이 말세(末世)17에
다시 문명(文明) 밝히자했나 미유문자(未有文字)18 모르거든
방금(方今) 세상(世上) 알아보고 망어문(亡於文)19을 잊지 마소
망어문(亾於文)이 되올 때의 흥어문(興於文)20이 없단 말인가
복희씨(伏羲氏)21는 용마(龍馬)되고 여와씨(女媧氏)22는 영귀(靈龜)23되니
영만(灵萬)되는 여와씨(女媧氏)가 복희씨(伏羲氏)의 딸일런가
시작(始作) 생황(笙簧)24 탄금성(彈琴聲)25은 오현금(五絃琴)26 상(上) 칠현금(七絃琴)27이라
무형(無形) 중(中)에 나는 소리 금불능어(金佛能語) 남변위녀(男變爲女)28
여변위남(女變爲男)29 변음변양(變陰變陽)30 모를네라 차세상(此世上)31
우부우녀(愚夫愚女) 문도중(聞道中)의 변화(變化)런가 변화무궁(變化無窮)
저 강씨(姜氏)32가 문화류씨(文化柳氏)33 되자 하고 기문가지(其文歌之)
여자(女子)로다 인신년수(人身年首) 누가 알꼬 남평문씨(南平文氏)34 분명(分明)터라 염제(炎帝)35 뜻
을 모르거든 화덕왕(火德王)36을
생각(生覺)하소 남평(南平) 이자(二字) 뜻이 있네 이런고로
세상(世上)일을 못 속이어 만성지조(萬姓之祖)37 누가 긴가

중입정신(中入精神) 하올 때의 화생토(火生土)38 지(之) 목생화(木生火)39라
편초목(鞭草木)40을 채질할 때 신인용병(神人用兵)41 아닐런가
감이생제(感而生帝)42 저 양반인 치우란(蚩尤乱)43이 어인 일인가
금지제(禽之制)44의 기운 기자(字) 탁록야(涿鹿野)의 뺨일런가
대염제이천자위(代炎帝而天子位)45를 봉(鳳)의 상서(祥瑞)46 있었는데
금천씨(金天氏)47의 저 백호(白虎)가 주청림(走靑林)48이 어인 일인고
민신잡유(民神雜糅) 불가방물(不可方物)49 잊지 마소전욱(顓頊)50이 수지(受之)51하야 내(乃)52 명남정중(命南正重)53하고
사천이속신(司天而屬神)54하며 화정려(火正黎)55로 사지이속민(司地而
屬民)56하며
사무상침독어천황씨지역(使無相侵瀆於天皇氏之域)57이러라
이때 비로소 작력(作曆)58하여 이(以) 맹춘(孟春)59으로 위원(爲元)60하다
생이신령(生而神灵)61하사 자언자명(自言自名)하야 차세지무극호(此世之無極乎)62아
황제지증손(黃帝之曾孫)63이러라 기인지천(其仁如天)64하고 기지여신(其知如神)65하며
취지여일(就之如日)하고 망지여운혜(望之如雲兮)여 도당씨지발육만물(양성지풍사(陶唐氏之發育萬物養性之風士)66러라 차(此) 승피백운지(乘彼白雲至)67
우제향(于帝鄕)68에 유우씨지하강(有虞氏之下降)69이러라 고(故)로
삼황오제지변화(三皇五帝之變化)70 부합(符合)하니 기비환정구궁(豈非還定九宮)71고
구궁천지(九宮天地) 이 천지태극(天地太極) 양의(两儀)72 요순시절(堯舜時節) 구궁환정구구가(九宮還定九九歌)를
불러봐 구구(九九)는 팔십일(八十一)하니 구중궁궐(九重宮闕)73
좋은 곳에 팔백연화(八百烟花)74 나열(羅烈)이요 팔년풍진(八年風塵)75
다 지나가니 팔선녀지시위(八仙女之侍位)76로다
일인지정(一人之定) 이 천하(天下)의 제후귀지(諸候歸之)77 아니런가
팔구(八九) 칠십이(七十二)하니 팔자(八字)치례 저 양반님
칠십이인(七十二人)78 다 왔거라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음양지합(陰陽之合)79 아닐런고 만세동락(萬歲同樂)80 천지정위(天地定位)81
부부합덕(夫婦合德)82 해원세(解寃世)83라 칠구(七九) 육십삼(六十三)하니
칠대영웅(七代英雄) 아니거든 칠국조공(七国朝貢)84 받는단 말인가
육판서(六判書)85의 삼(三)정승86은 삼태육향(三台六鄕)87 마련이요주문왕(周文王)88의 저 태공(太公)89이 달기요귀(妲己妖鬼)90 잡아다가
단지옥에 가두어 죽여 일야평정(一夜平定)91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약벌병(以藥伐病)92하는 양반
이선벌악(以善伐惡)93 천하평정(天下平定) 명명기덕(明明其德) 일었구나
육구(六九) 오십사(五十四)하니
육십사괘(六十四卦)94 오행둔(五行遁)95을
사시일기(四時一氣) 도래(圖來)로다 천우신조(天佑神助)96 아니고서
인력(人力)으로 된단 말인가 오구(五九) 사십오(四十五)하니

오운조기(五雲朝起)97 이 조기(朝起) 이 조선(朝鮮)의 사목성군(四目聖君)
난단 말인가 사목성군(四目聖君) 누구일런고 오채용문(五彩龍文)98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 모른다 한패공(漢沛公)99
오채용문(五彩龍文)을 망증(茫增) 아니고 안단 말인가
사구(四九) 삼십육(三十六)하니 사십평생(四十平生) 먹은 마음
삼년성공(三年成工) 하자하고 육도삼략(六韜三畧)100 정정군용(丁丁軍容)101
원근(遠近)에 벌어놓고 호신접기(呼神接氣)102 호래척거(呼來斥去)103
강태공(姜太公)의 어진 병법(兵法)이 아닌가
삼구(三九) 이십칠(二十七)하니 삼인일석(三人一夕) 닦을 수(修) 자
삼인(三人) 아니고 못 닦는다 천지인삼재지도변(天地人三才之道變)104
역천지(易天地)105 이인합(二人合)을 칠원군(七元君)106이 화(化)하엿네
칠성(七星) 전(前)에 드린 정성 삼인일심(三人一心) 되었던가
천지대도(天地大道) 기환정(氣還定) 이구(二九) 십팔(十八)하니
이천년(二千年)을 받은 운수(運數) 팔왕문(八王門)이 뉘집인고
대성궁중(大成宮中) 춘광호(春光好)107라 일구(一九) 구(九)하니
일천하(一天下)의 구주강산(九州江山) 구십천지(九十天地) 변화(變化)로다
어아 인심(人心) 내 사람들 세간중인부동귀(世間衆人不同歸)108를
알았거든 세간중인개동귀(世間衆人皆同歸)109를 잠을 깨어
알아내소 얼시구나 이때로다 이단허무지도(異端虛無之道)110
없어진다 문명발달(文明發達) 되어나네
三皇五帝春還宮 五雲朝起吾朝鮮
四目聖君時代家 天下各國歸來信

悔過自責歌
요 보아라 세상(世上)사람 우리 집안 좋은 운수(運數)
하늘님이 왔네 천지합덕(天地合德) 되올 때의
하늘 없이 될까 하남정씨양부자출(河南程氏两夫子出)1을
모르거든 대학경(大學經)2을 읽으시오
대학(大學)이라 하는 글 격물치지(格物致知)3 아닌가
격물치지(格物致知) 될 때 만사지(萬事知)4가 아닌가
물망세은(勿忘世恩)5 모르거든 영세불망(永世不忘)6 아소
망어문(亡於文)이 되올 때의 불도세계(佛道世界) 아닌가
음양교전(陰陽交戰)7 저 주역(周易)8 군자호술(君子好述)9 왔네
역자(易字) 뜻을 모르거든 주자(周字) 뜻을 아소
수시변역(隨時變易)10 누구여 무왕불복(無往不復)11 도로 온 이
누군가 지공무사(至公無私)12 하늘님 선심자(善心者)13를 찾네
선각자(先覺者)14를 이를 때 천불위(天不違)15가 아닌가
후각자(后覺者)를 이를 때 봉천시(奉天時)16를 일렀네

주천자(朱天子)의 어진 도덕(道德) 천필명지(天必命之)17 일렀네
천필명지(天必命之) 모르거든 기초정(基初定)을 아소
된다 된다하고 차일피일(此日彼日)18 하더니
되려는가 자허유실(自虛有實)19 쉽게도 되네
이리 될 줄 아는 사람 누구 누구 일렀나
갈처사(葛處士)의 십보가(十步歌)20 무형세계(無形世界) 일렀고
퇴계선생(退溪先生)21 권선가(勸善歌)22 유형세계(有形世界) 일렀네
정감(鄭鑑)23에 이른 말 불도성인(佛道聖人) 아닌가

[각주]

147) 허다(許多) : 매우 많음.

148) 지각자(知覺者) : 깨달은 자.

149) 일락서산(日落西山) : 해가 서쪽 산으로 지다.

150) 일출동령(日出東嶺) : 해가 동쪽 산봉우리에 뜨다.

151) 지공무사(至公無私) :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다.

1) 구궁환정구구가(九宮還定九九歌) : 이 가사의 제목인 <구궁환정구구가>의 구궁(九宮)이란 천공을 9개의 궁전에 비유해서 말한 것으로 아홉 방위의 자리를 뜻한다.즉, 낙서(洛書)에 응한 구성(九星)에 중궁(中宮)과 팔괘(八卦)를 팔문(八門)에 배합한 것이다.그리고 환정(還定)이란 모든 것이 새롭게 돌아와 정해짐을 일컫는다.또한 구구(九九)란 구구법을 뜻한다.

2) 구구법(九九法) : 곱셈에 쓰는 기초 공식으로 1에서 9까지의 각 수를 두 수끼리 서로 곱하여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3) 구변(九變) : 아홉 번 변한다.구변(九變)은 구복(九復)과 함께 쓰이며 구변구복(九變九復)으로 일컬어진다.구변구복에는 9×9=81이라는 천부경의 수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이치를 뜻한다.

4) 구복(九復) : 아홉 번 회복된다.

5) 건곤괘(乾坤卦) : 건괘는 하늘의 상징이고, 곤괘는 땅의 상징으로 이는 무궁의 정신을 의미한다.

6) 우성재야(牛性在野) : 소가 봄이 되어 풀이 돋아나니, 들에서 풀을 뜯고 있음을 말한다.이는 번창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 즉 적절한 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7) 건우(乾牛) : 건(乾)은 하늘이고 소(牛)는 땅을 상징하는 동물로 주역(周易)에서 건우는 처음은 괴롭고 어려우며 막혔으나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모든 것이 형통하여 승리하게 됨을 의미한다.

8) 금수하강(金水下降) : 오행 가운데 금의 기운이 하강한다는 것을 뜻한다.

9) 인생어인(人生於寅) : 사람은 인시에 태어난다.

10) 삼황오제(三皇五帝) :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과 오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11) 용사기륙(龍巳起陸) : 용과 뱀이 땅으로 나와 일어난다는 뜻.

12) 사신인수(蛇身人首) :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라는 뜻으로, 중국 상고 시대의 제왕 복희씨의 괴상한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13) 풍성(風姓) : 팔괘가운데 손(巽)괘는 그 형상이 풍(風)이면서 또한 이는 장녀인 것을 뜻하는데 사류(史類)에 복희씨는 풍성(風姓)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복희씨가 여인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따라서 이 작품에서 풍성은 복희씨를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14) 하도성신(河圖星辰) : 하도는 복희 때 황하에서 용마가 나왔을 때 등에 그려진 무늬를 뜻하며 성신은 별을 이른다.

15) 부도(符圖) :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예측하여 적어놓은 글로 부(符)는 구름·사물·별 들의 모습에서, 도(圖)는 사물의 변화 형태에서 취한 것이다.

16) 자위화지능문능필무서(自爲化之能文能筆無書) : 스스로 감화하여 글과 글씨에 능하나 책을 펴지 못하다.

17) 말세(末世) :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쇠퇴하여 끝이 다 된 세상.

18) 미유문자(未有文字) : 문자가 없다.

19) 망어문(亡於文) : 문(文)이 망하다.
20) 흥어문(興於文) : 문(文)이 흥하다.
21) 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인 삼황오제의 우두머리이며,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22) 여와씨(女媧氏) :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사람의 얼굴과 뱀의 몸을 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그녀는 오색 돌을 빚어서 하늘의 갈라진 곳을 메우고 큰 거북의 다리를 잘라 하늘을 떠받치고 갈짚의 재로 물을 빨아들이게 하였다고 한다.
23) 영귀(靈龜) : 신령한 거북이, 영험한 거북이.
24) 생황(笙簧) : 아악(雅樂)에 쓰는 관악기의 하나로 큰 대로 판 통에 많은 죽관(竹管)을 돌려 세우고, 주전자 귀때 비슷한 부리로 불게 되어 있다.
25) 탄금성(彈琴聲) : 거문고・가야금 등을 타는 소리.
26) 오현금(五絃琴) : 다섯 줄로 된 옛날 거문고의 하나로 중국의 순(舜) 임금이 만들었다고 한다.이는 칠현금의 전신(前身)이다.
27) 칠현금(七絃琴) :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현악기의 하나로 일곱 줄을 매어 만든 일종의 거문고이다.이는 오현금에 문무현(文武絃)을 더한 것이다.
28) 남변위녀(男變爲女) : 남자가 여자로 변하다.
29) 여변위남(女變爲男) : 여자가 남자로 변하다.
30) 변음변양(變陰變陽) : 음으로 변하고 양으로 변하다.
31) 차세상(此世上) : 이 세상.
32) 강씨 : 갱정유도의 창시자인 강대성을 이르는 듯하다.
33) 문화류씨(文化柳氏) : 시조는 고려의 류차달로 고려 개국 이후 조선을 거쳐 천여 년 동안 많은 명경석학(名卿碩學)이 계속 배출되어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 한 명벌(名閥)로써 옛 부터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일컬어져 왔다.
34) 남평문씨(南平文氏) : 시조는 신라 말에 태어나 고려 건국에 적극 참여했던 문다성으로 본관은 관향이라고도 하며 성씨앞에 붙은 지명이며 본관은 남평이기에 남평 문씨라고 한다.
35) 염제(炎帝) : 신농씨를 이르는 말로 그가 백성을 교화하여 농업을 일으키는 한편, 불의 사용법을 가르쳤다고 하여 염제, 혹은 화덕왕이라고 부른다.
36) 화덕왕(火德王) : 신농씨를 이르는 말.
37) 만성지조(萬姓之祖) : 모든 백성의 조상.
38) 화생토(火生土) : 음양오행설에서 '화(火)'에서 '토(土)'가 생긴다는 뜻을 이르는 말이다.
39) 목생화(木生火) : 음양오행설에서 나무에서 불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목(木)'과 '화(火)'가 어울린다는 뜻이다.
40) 편초목(鞭草木) : 초목으로 만든 채찍.
41) 신인용병(神人用兵) : 신과 인간의 군사를 부림.
42) 감이생제(感而生帝) : 감응하여 황제를 낳다.
43) 치우란(蚩尤乱) : 치우의 난을 뜻하는 것으로 치우가 헌원에게 복종하지 않고 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44) 금지제(禽之制) : 사로 잡아서 제어하다.

45) 대염제이천자위(代炎帝而天子位) : 염제를 대신하여 천자로 자리잡다.
46) 상서(祥瑞) : 경사스럽고 길한 징조.
47) 금천씨(金天氏) : 소호금천씨(小昊 金天氏)는 산동성 곡부(曲阜)에서 도읍한 신라의 김(金)씨의 시조이며 헌원 황제의 아들이다.
48) 주청림(走靑林) : 청림으로 달려가다.청림은 도를 이루어 난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이를 뜻한다.
49) 불가방물(不可方物) :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
50) 전욱(顓頊) :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황제 헌원의 손자이다.황제를 이어 20세에 임금 자리에 올라 처음 고양(高陽)에 나라를 일으켰으므로 고양씨(高陽氏)라 불렀다.
51) 수지(受之) : 받들어.
52) 내(乃) : 이에
53) 명남정중(命南正重) : 남정의 중(重)에게 명하여.남정이란 전욱이 설치한 관직의 이름으로 하늘과 천문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54) 사천이속신(司天而屬神) : 하늘을 맡아 신을 돌보다.
55) 화정려(火正黎) : 불을 다스리는 신.
56) 사지이속민(司地而屬民) : 땅을 맡아 백성을 돌보다.
57) 사무상침독어천황씨지역(使無相侵瀆於天皇氏之域) : 천황씨의 땅에 서로 침노하고 더럽힘이 없도록 시키다.
58) 작력(作曆) : 책력을 짓다.
59) 맹춘(孟春) : 음력 정월을 이르는 말로 초봄을 뜻한다.
60) 위원(爲元) : 으뜸이다.
61) 생이신령(生而神灵) : 나면서부터 신령이다.
62) 차세지무극호(此世之無極乎) : 이 세상은 무극(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로다.
63) 황제지증손(黃帝之曾孫) : 황제의 증손자.
64) 기인지천(其仁如天) : 그 어짊이 하늘과 같다.
65) 기지여신(其知如神) : 그 앎이 신(神)과 같다.
66) 도당씨지발육만물양성지풍사(陶唐氏之發育萬物養性之風士) : 도당씨의 만물 발육은 풍사의 천성을 기른다.
67) 승피백운지(乘彼白雲至) : 백운을 타고 올라 이르다.
68) 우제향(于帝鄕) : 제향에 이르다.
69) 유우씨지하강(有虞氏之下降) : 유우씨의 하강.유우씨는 중국의 순임금을 이른다.
70) 삼황오제지변화(三皇五帝之變化) : 삼황오제의 변화.
71) 기비환정구궁(豈非還定九宮) : 어찌 환정 구궁이 아니겠는가.
72) 양의(两儀) : 음(陰)과 양(陽)을 가리키는 말.
73) 구중궁궐(九重宮闕) :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른다.
74) 팔백연화(八百烟花) : 산굽이 사이로 아련히 끼이는 운무(雲霧)를 연(煙)이라 표현한 것으로 이는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75) 팔년풍진(八年風塵) : 8년간의 바람과 먼지라는 뜻으로, 여러 해에 걸쳐 고생함을 이르는 말이다.

76) 팔선녀지시위(八仙女之侍位) : 팔선녀가 시중들던 자리.
77) 제후귀지(諸侯歸之) : 제후가 돌아오다.
78) 칠십이인(七十二人) : 공자의 제자 72인을 이르는 듯하다.
79) 음양지합(陰陽之合) : 음양의 합.
80) 만세동락(萬歲同樂) : 오래도록 함께 즐김.
81) 천지정위(天地定位) : 하늘과 땅이 그 위치를 보전하여 안정을 얻는 일.
82) 부부합덕(夫婦合德) : 부부가 덕을 합하다.
83) 해원세(解寃世) : 원통한 세상을 풀다.
84) 칠국조공(七国朝貢) : 칠국의 조공이란 뜻으로 칠국이란 중국 전국 시대의 일곱 강국.진(秦), 초(楚), 연(燕), 제(齊), 조(趙), 위(魏), 한(韓)을 이른다.
85) 육판서(六判書) : 육조(六曹) 판서(判書).
86) 삼정승 :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른다.
87) 삼태육향(三台六鄕) : 삼정승 육판서.
88) 주문왕(周文王) : 주나라의 문왕.
89) 태공(太公) : 강태공을 이르는 말.
90) 달기요귀(妲己妖鬼) : 달기는 중국 은나라 주왕의 비로 왕의 총애를 믿고 음탕하고 포악하였는 데, 뒤에 주나라 무왕이 그를 죽였다.즉, 달기요귀는 달기를 요괴에 비유해서 이른 말이다.
91) 일야평정(一夜平定) : 하룻밤에 평정하다.
92) 이약벌병(以藥伐病) : 약으로써 병을 고치다.
93) 이선벌악(以善伐惡) : 선으로써 악을 벌하다.
94) 육십사괘(六十四卦) : <주역 周易>에서 모든 천지만물을 상징하기 위해 설정한 64개의 괘(卦).
95) 오행둔(五行遁) : 다섯 가지 둔갑법.
96)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이 도움.
97) 오운조기(五雲朝起) : 오색 구름이 아침에 일어나다.
98) 오채용문(五彩龍文) : 다섯 가지 빛깔의 용무늬.
99) 한패공(漢沛公) : 중국의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일컫는 말로 자는 유계(劉季), 묘호는 고조, 시호는 고황제(高皇帝)이다.
100) 육도삼략(六韜三畧) : 중국의 오래된 병서(兵書)인 『육도(六韜)』와 『삼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이는 중국 고대 병학의 최고봉인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의 2서이다.
101) 정정군용(丁丁軍容) : 정정한 군대의 모양.정정(丁丁)이란 말뚝을 박는 소리, 나무를 벨 때 도끼로 잇따라 찍는 소리 등을 뜻한다.
102) 호신접기(呼神接氣) : 신을 불러 기를 접하다.
103) 호래척거(呼來斥去) : 사람을 불러 왔다가 바로 그 길로 돌려 보냄.
104) 천지인삼재지도변(天地人三才之道變) : 천·지·인 삼재의 도가 변함.
105) 역천지(易天地) : 천지를 바꾸다.
106) 칠원군(七元君) : 칠원성군(七元星君)을 일컫는 듯하다.칠원성군은 북두칠성을 이르는 말로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의 일곱 개의 별을 뜻한

다.이를 섬기면 천재지변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한다.이는 별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도교의 믿음에서 유래하였으며 칠성은 칠원성군의 준말로 비를 내려 풍년을 이루게 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며, 재물을 준다고도 믿어져 왔다.

107) 춘광호(春光好) : 봄볕을 좋아함.

108) 세간중인부동귀(世間衆人不同歸) : 세상 사람들과 한가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수운 최제우의 입춘시(立春詩)의 한 구절이다.

109) 세간중인개동귀(世間衆人皆同歸) : 세상 사람들과 모두 한가지로 돌아간다.

110) 이단허무지도(異端虛無之道) : 이단의 공허한 도.

1) 하남정씨양부자출(河南程氏兩夫子出) : 하남 땅에 정씨(程氏) 두 부자가 나왔다.'는 뜻으로 주희가 『대학(大學)』에 주석을 달아 펴낸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수록된 내용이다.

2) 대학경(大學經) :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을 일컫는 것으로 『대학(大學)』은 『예기』의 한 편이었던 것을 송의 사마광이 처음으로 따로 떼어서 『대학광의(大學廣義)』를 만들고, 그 후 주자(朱子, 주희)의 교정으로 오늘날의 형태로 되었다.책은 명명덕(明明德)·지지선(止至善)·신민(新民)의 세 강령을 세우고, 그에 이르는 여덟 조목의 수양 순서를 들어서 해설하고 있다.

3) 격물치지(格物致知) :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대학』에 나오는 말이다.

4) 만사지(萬事知) : 세상의 모든 일을 앎.

5) 물망세은(勿忘世恩) : 세상의 은혜를 잊지 말라.

6) 영세불망(永世不忘) : 오랜 세월 잊지 말라.

7) 음양교전(陰陽交戰) : 음과 양이 서로 싸우다.

8) 주역(周易) : 고대 중국의 철학서.육경(六經)의 하나로 만상(萬象)을 음양 이원으로써 설명하여 그 으뜸을 태극이라 하였고 거기서 64괘를 만들었는데, 이에 맞추어 철학·윤리·정치상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9) 군자호술(君子好述) : 군자의 좋은 짝.

10) 수시변역(隨時變易) : 때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

11) 무왕불복(無往不復) : 가고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

12) 지공무사(至公無私) :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다.

13) 선심자(善心者) : 착한 마음으로 믿는 자.

14) 선각자(先覺者) :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깨친 이.

15) 천불위(天不違) : 하늘을 어기지 않음.

16) 봉천시(奉天時) : 하늘을 받들어 모실 때.

17) 천필명지(天必命之) : 하늘은 반드시 명한다.

18) 차일피일(此日彼日) : 이날 저날하고 자꾸 미루기만 한다.

19) 자허유실(自虛有實) : 빈 것으로부터 열매가 가득 있다.

20) 십보가(十步歌) : 조선 고종 때, 신재효가 지은 가사의 하나로 열 걸음을 떼어 놓으면서 걸음마다 숫자를 넣어 재미있게 말을 엮은 가사이다.<갈처사십보가>라고도 한다.

21) 퇴계선생(退溪先生) : 퇴계 이황(1501~1570).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이동설(理動說)·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등 주리론적 사상을 형성하여 주자성리학을 심화·발전시켰으며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이

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22) 권선가(勸善歌) : <퇴계선생권선지로가>를 일컫는 듯하다.

23) 정감(鄭鑑) : 조선 중기 이후 백성들 속에 유포된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앞날에 대한 예언서로 풍수지리상으로 본 조선 왕조 후 역대의 변천 등을 예언하고 있다.이심(李沁)과 정감(鄭鑑)의 문답을 기록한 책이라 하나 이본이 많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